

2021년 인문아카데미
노원평생학습관
2021.02.03

플라톤의 『국가』에서의 이상국가와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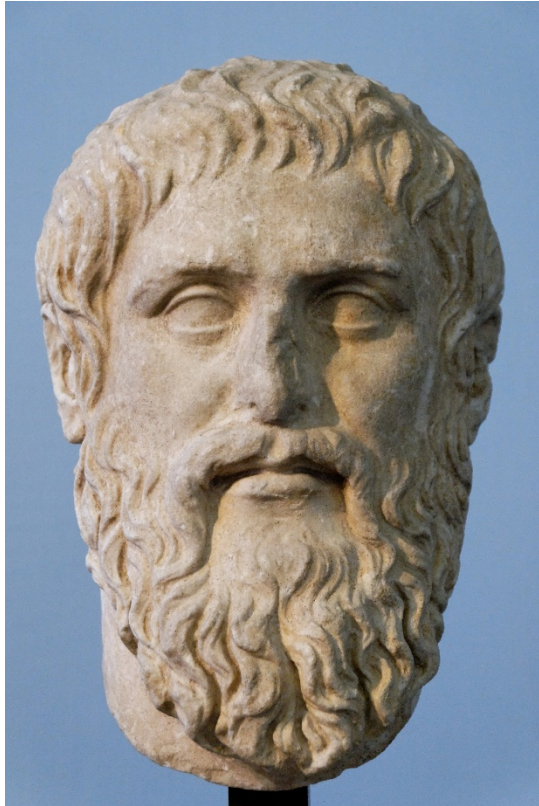
[사상](思想)이란?

- ▶ 인류가 대면하는 문제에 대한 의식반응
(conscious responses)
- ▶ 인간의 사유를 통해 생활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성의 산물
- ▶ 경제사상: 특정시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‘사고의 뭉치’

사상을 연구하고 배우는 방법

- ▶ 독트린(교의 doctrine) :
 - ▶ 교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는 연구. 기독교의 교의, 유교의 유학사, 불교의 교의 등 **특정 학설의 발달사**를 주로 다루는 연구
- ▶ 관념(idea) :
 - ▶ 여러 관념을 특정 시점의 정치적, 사회적 환경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사상의 **어떤 기능을 했는가**를 역사적으로 추적
- ▶ 담론(discourse) :
 - ▶ **경제적, 정치적 언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방법**(Quentin Skinner, J. G. A Pocok).
 - ▶ 사상을 일종의 언어행위로 간주.
 - ▶ 과거의 사상 관련 저술과 언술에 숨겨진 의도를 "있었던 그대로" 탐색.
 - ▶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분석 → 당시의 사회경제적, 정치적 합의(convention) 탐색

플라톤(Plato)는 누구인가?



- ▶ 플라톤(Plato, BC 428~347?)
 - ▶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
 - ▶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설립 (아카데메이아) → 형이상학, 정치학, 윤리학, 철학
 - ▶ 출신: 명문가문.
 - ▶ 저서: <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>, <크리톤>, <향연>, <파이돈>, <국가> 등

플라톤 번역저서

- ▶ 《소크라테스의 변명》,
 - ▶ 강철웅 역, 이제이북스, 2014년.
 - ▶ 천병희 역, 숲, 2012년.
- ▶ 《국가·정체(政體)》
 - ▶ 박종현 역, 서광사, 2005년 개정보증판.
- ▶ 《향연》
 - ▶ 강철웅 역, 이제이북스, 2010년.
 - ▶ 천병희 역, 도서출판 숲, 2016년.
- ▶ 《법률》
 - ▶ 박종현 역, 서광사, 2009년.
 - ▶ 천병희 역, 도서출판 숲, 2016년.

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



라파엘로의 <아테네 학당, The School of Athens>,
1509-1510,
바티칸 사도궁전 내 '서명의 방'의 프레스코벽화

고대 아테네 상황



▶ 도시국가(polis)

- ▶ 그리스 도시국가의 기본단위. 타민족의 침입에 대항하는 정치적 군사적 공동체. 자급적 경제생활
 - ▶ 패쇄적이지만 하나의 정치적 완결체.
 - ▶ 폴리스 내에서 정치적/경제적 모든 문제가 해결
 - ▶ 폴리스 밖에는 문명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은 폴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.
 - ▶ “인간은 폴리스 내에서만 자유롭다”
 - ▶ 개인을 포괄하는 “전체”로서의 폴리스라는 인식이 강함
 - ▶ 폴리스 내의 시민은 상대적으로 평등.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참여.
- 정치참여를 통해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인식.

고대 그리스 민주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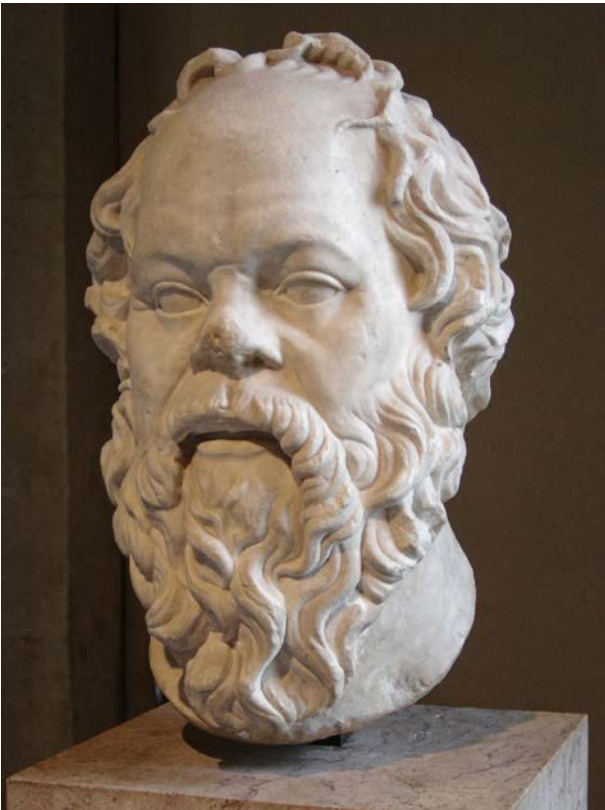
▶ 아테네

- ▶ 폴리스 중의 하나인 아테네는 가장 부강한 폴리스.
- ▶ 식민지 경영과 노예제도에 기반한 시민의 경제적 여유. → 성인남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.
- ▶ Solon의 개혁 : 아테네에서의 농업노예 해방과 시민권 부여.
 - ▶ “아테네인은 노예가 될 수 없다”. 제도개혁 완성 (Council. Assembly. Court)

아테네의 문제상황

- ▶ 첫째, 폴리스 내의 개인의 정체성과 시민 정체성과의 갈등.
 - ▶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면 국가가 시민에게 이롭다고 생각.
 - ▶ 즉 국가이익에 더 충실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이 더 증진된다는 생각.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물
- ▶ 둘째, 사회경제적 변화
 - ▶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변화되면서 토지귀족과 상업적 평민의 대립이 격화.
 - ▶ 당파투쟁으로 민주주의 붕괴 위기
- ▶ 셋째, 대안 형성
 - ▶ 그리스의 전통으로의 복귀주장(소크라테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) vs. 상업적 평민의 개인주의적 입창 대변(소피스트)

소크라테스의 해법



- ▶ 민주주의 혼란에 대한 '보수주의'적 해법 제시
 - ▶ 폴리스 내 보편적 이상과 질서를 통해 조화와 안정 부여.
 - ▶ 국가는 로고스에 기초한 객관적 규범질서.
 - ▶ 국가는 국가의 목적에 맞는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은 교육에 복종해야 함.
 - ▶ 국법을 이해하고 따를 때 정의(正義)는 실현.

소피스트의 해법

- ▶ 인간은 감각과 욕망을 지닌 존재.
 - ▶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는 Logos는 존재하지 않음.
 - ▶ 오직 개인의 감각과 욕구만이 기준.
 - ▶ 인간의 본성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. 이런 점에서 인간은 평등.
- ▶ 폴리스(국가)에 관해
 - ▶ 개인들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지만 현실은 다름.
 - ▶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의이고, 종교는 통치자가 인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.
 - ▶ 국가는 강자를 위한 장치일 뿐.

플라톤의 철학

- ▶ 플라톤의 철학적 기초 : Idea
 - ▶ 소크라테스의 로고스 개념을 발전시킨 것.
 - ▶ 이데아는 자연과 인간의 원형으로 불변.
 - ▶ 현실세계 넘에 존재. 현실세계는 이데아의 "그림자"일 뿐.
 - ▶ 인간은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 이데아에 이를 수 있음.
 - ▶ 객관적 진리=윤리

플라톤의 정치

▶ 정치:

- ▶ 인간을 보다 이데아 가깝게 하도록 조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.
- ▶ 조화와 질서의 상태가 정의(正義).
- ▶ 정치는 오류가 없는 철인(哲人)에 의해 이루어야 함.

▶ 국가:

- ▶ 전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.
- ▶ 영혼이 이성, 기력,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듯 국가도 이성적 철인, 기력의 군인, 욕망의 평민으로 나뉘어져 있음(계급은 기능의 차이).
- ▶ 이들 계급이 기능적 직분을 다하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짐.

플라톤 정치체제 유형

이성(理性)의 지배	기력(氣力)의 지배	욕망(欲望)의 지배
철인(哲人) 군주제 귀족정치	군인정치	과두정치, 중우정치 참주(전제) 정치
완전국가	불완전 국가	

플라톤 정치체제 유형

- ▶ 군인정치: 지배계층은 명예만 바라고, 이성적 통제가 없음. 전쟁참가만 있고 교육은 없음
- ▶ 과두정치: 돈에 의한 지배. 빈부격차 심하고 통치무능. 덕 경시. 무질서. 가난한 사람들의 반항으로 중우정치 등장
- ▶ 전제정치: 철인정치의 반대극단. 동물적 지배. 중우정치의 극단적인 반동

플라톤의 경제

▶ 소유: 공유제?

- ▶ 지배자가 사적 소유를 하고 있을 때 부패할 가능성이 있음.
- ▶ 전체사회를 위해 개인의 이익에 매달릴 수 있기 때문.
- ▶ 지배계급 내에서의 재산은 공유.
- ▶ 최상의 자손을 낳기 위해 가족제도 폐지.

플라톤의 [국가] 속 경제사상

- ▶ 이상국가 = 지배계급 내 공유제
 - ▶ 지배계급(수호자 the guardians)의 철저한 공유제 제안
 - ▶ 수호자 계급은 작은 집에서 살며, 간소한 음식을 먹어야 함.
 - ▶ 군대막사와 같이 동료들과 공동으로 밥을 먹으며 생활
 - ▶ 필요이상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해서도 안됨. 금과 은의 소유 금지. “부유하지 않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 없다”
 - ▶ 부와 가난 둘다 해롭다.

플라톤의 [국가] 속 경제사상

▶ 가족공유

- ▶ 여자와 자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함.
“비록 어렵지만,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.”

▶ 남녀평등

- ▶ 소년들도 소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음악과 체육, 전술 훈련을 배우게 함. 여자는 모든 점에서 남자와 완전히 동등
- ▶ “남자를 훌륭한 수호자로 키우는 교육은 여자도 똑같이 훌륭한 수호자로 성장시킬 것인데 이는 남자와 여자의 본성이 같기 때문”
- ▶ 어떤 여자는 철학적 능력이 뛰어나서 수호자로 적합하고, 어떤 여자는 호전성을 지니기 때문에 훌륭한 군인이 되기도 함

플라톤의 [국가] 속 경제사상

▶ 대표성

- ▶ 입법자는 여자와 남자를 일정한 수에 맞춰 수호자 계급으로 선출
- ▶ 공동 숙소에 살면서 음식도 같이 먹도록 규정

▶ 결혼

- ▶ 정기적으로 열리는 파트에서 신부와 신랑은 인구 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추첨으로 결혼시킴.
 - ▶ “여자들은 예외없이 남자들의 공동 아내가 될 것이므로 아무도 자신만의 아내를 두지 못할 것이다”(플라톤)
- ▶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공동육아.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누구인지 모름. → 아버지 또래 전무에 ‘아버지’라고 하고, ‘어머니’, ‘형제’, ‘자매’ 역시 마찬가지로.

플라톤의 공유제 의미

- ▶ 지배계급의 사적 소유 즉 사적 욕망을 약하게 함으로써, 공공정신에 따른 지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
- ▶ 성직자의 독신 역시 같은 맥락

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반항?

▶ 철학:

- ▶ 플라톤과는 달리 개체를 중심으로 한 사고. 개체에서 출발하여 보편과 통일을 지향함.
- ▶ 이데아로 현실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.
- 형상과 질료의 합으로 설명. 형상은 사물의 본질이며, 질료는 그 사물의 소재. 그러나 형상과 질료는 분리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존재.
- 세계는 일원적(一元的): 이상과 현실의 결합

아리스토텔레스의 해법

▶ 정치

- ▶ 국가는 초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함.
- ▶ 국가라는 형상은 개인이라는 질료 없이는 존재 불가능.
- ▶ 국가는 최초의 자연적 결합체인 가족으로부터 생성된 것.
- ▶ 전체적인 조화보다는 부분의 다양성을 존중한 조화 중시

아리스토텔레스의 해법

▶ 교육

- ▶ 플라톤처럼 계급적 교육이 아니라, 시민이 윤리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선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둠

▶ 경제

- ▶ 공유제 불인정.
- ▶ 사유재산은 인간의 선량한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.
- ▶ 사유재산 자체가 나쁘기 보다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나쁨.
- ▶ 교육에 의해 평등문제를 해결해야 함.

플라톤의 [이상국가] 평가

- ▶ 이데아론에 입각한 정치현상 개념화.
- ▶ 정치에 윤리목적을 부여.
- ▶ 이상주의 철학의 전형.
- ▶ 전체주의 사상으로의 변질 가능성.
 - ▶ 즉 국가가 자기완결적이며, 국가 속에서만 선과 행복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중심주의로 빠져들 수 있음.

감사합니다.